# LG디스플레이 (034220)

## 4Q25 실적 Review, 설명회 Q&A 정리

반도체/디스플레이
Analyst 김선우
sunwoo.kim@meritz.co.kr
RA 우서현
seohyun.woo@meritz.co.kr

Meritz Research 2026. 1.28

### 4Q25 체질 변화 성공, 4년만에 연간 흑자 전환 달성

4Q25 영업이익 1,685억원 (OPM 2.3%), 25년 영업이익 5,170억원 (OPM 2.0%) 을 기록하며 4년 만에 연간 흑자전환에 성공. 이는 1) 장기간 지속해온 OLED 중심의 사업 체질 개선과 원가 절감 활동 효과 발현, 2) 미주 핵심 고객 모바일 패널의 견조한 점유율 지속과 원화강세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

1) OLED 매출 비중은 65%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 ASP는 1,297달러 (-5% QoQ)로 가이던스 부합. 광저우 대형 LCD Fab 매각 이후 OLED 중심의 체질 개선이 발현되며, 안정적인 출하면적과 ASP 지속
2) 북미 고객사의 제품 출시 변화로 계절성 완화가 기대되는 동시에,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외형 성장과 매분기 수익 창출 유지에 집중할 것을 공유

동사는 제조 안정화와 고객 침투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는 중으로 평가. 특히, 일회성 비용 제거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했음을 강조. 다만, 과거 훼손된 영역의 정상화를 위한 비경상 비용이 재차 확인

큰 그림에서 동사의 회복 스토리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특히 동사의 경우 미주 주요 고객 향 꾸준한 점유율 확대를 통해, 예전 대비 견조한 POLED 실적 개선을 시현 중. 비록 폴더블 제품의 동사 진입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모바일 세트의 차별화 요인이 폼팩터로 변모되며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는 크게 올라갈 전망. 중장기적으로 동사는 1) 대형 OLED 원가 절감 및 점진적 외형 확대 및 2) 폴더블 IT패널 대응력 향상을 통한 구조적 실적 개선이 가능하리라 판단됨

**투자 계획** 8.6G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
25년 Capex는 1조원대 중반 수준으로 마감. 26년 2조원대 Capex 제시 (OLED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집행과 R&D 비용 등). 아울러, 기보유한 인프라 활용에 중점을 두고 수익성 중심의 투자 기조 강조

**1Q26 가이던스** 출하 면적: 20% 초반 QoQ 감소, ASP: 한 자릿수 중반 % QoQ 하락을 제시. 대형 LCD 사업 매각과 OLED 중심의 포트폴리오 변화로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ASP 1,200달러 이상 수준으로 제시 (vs 1Q25 804달러, 1Q24 782달러)

## 실적발표 주요 데이터 정리

### 응용처별 매출 비중

- 모바일 등 40%, IT 36%, TV 17%, Auto 7%
- 전방 시장 환경 및 고객사별 운영 전략 차이로 계절성 희석
- OLED 매출 비중은 65% (+5%p YoY) 기록. OLED 중심의 전환 지속. 연간 누적 기준 24년 55% → 25년 61% (6%p 증가)

### 4Q25 출하 면적 / ASP

- 출하 면적: 400만㎡ (+2% QoQ, -38% YoY)
- 면적 당 ASP: 1,297달러 (-5% QoQ, +49% YoY)

### 1Q26 가이던스

- 출하 면적: 20 초반 % QoQ 감소. 계절적 비수기 진입
- 면적 당 ASP: 한 자릿수 중반 % QoQ 하락. 전분기 대비 감소하나, OLED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과거 동일 분기 대비 높은 1,200달러 수준 유지할 것으로 전망 (vs 1Q25 804달러, 1Q24 782달러)

## CFO Highlight

- OLED 중심의 사업구조 고도화와 고강도 원가 혁신 활동의 효과 확인. 4년 만에 연간 흑자 전환 성공하며 사업 체질 개선 시현
- 아울러, 일회성 비용 제거 시 5,000억원 중반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수익성 정상화와 함께 부채/현금성 자산/재고 자산 등 재무 활동 개선 또한 빠르게 진행 중
-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보유 인프라 최대 활용 방침 등 생존을 위한 절치부심이 경쟁력 회복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

### 사업 부문별 코멘트

- 소형 모바일 OLED: 기술 리더십, 고객사와의 파트너십 바탕으로 출하 확대 도모
- 중형 IT OLED: 하이엔드 중심의 시장 니즈 적극 대응 예정. 제품군별 OLED 전환 속도 맞춰가며 보유 인프라 적극 활용 도모
- IT LCD: 저수익 제품 비중 축소, OLED 등 수익성 중심의 운영 기조 유지
- 대형 OLED: 전략 고객선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라인업 확대 추진
- AUTO: 기술력 기반의 경쟁 우위 유지할 것

### 투자 활동 코멘트

- 25년 1조원대 중반 수준의 Capex 집행. 26년 2조원대 수준 예상 (OLED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R&D 비용 등)
- 보유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며 신규 확장 투자는 제품군별 OLED 전환 속도에 맞춰 신중히 접근할 예정

표1 LG디스플레이 4Q25P 실적 Review

| (십억원) | 4Q25P | 4Q24 | (% YoY) | 3Q25 | (% QoQ) | 컨센서스 | (% diff.) | 당사예상치 | (% diff.) |
|---|---|---|---|---|---|---|---|---|---|
| 매출액 | 7,200.9 | 7,832.9 | -8.1% | 6,957.0 | 3.5% | 7,219.2 | -0.3% | 7,530.0 | -4.4% |
| 영업이익 | 168.5 | 83.1 | 102.8% | 431.0 | -60.9% | 420.9 | -60.0% | 241.1 | -30.1% |
| 세전이익 | -371.6 | -562.4 | 적자축소 | 29.9 | 적자전환 | 26.0 | 적자전환 | 277.1 | 적자전환 |
| 지배주주순이익 | -351.2 | -917.8 | 적자축소 | -20.7 | 적자확대 | 199.7 | 적자전환 | 272.8 | 적자전환 |
| 영업이익률(%) | 2.3% | 1.1% | | 6.2% | | 5.8% | | 3.2% | |
| 순이익률(%) | -4.9% | -11.7% | | -0.3% | | 2.8% | | 3.6% | |

자료: LG디스플레이,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LG디스플레이 실적설명회 주요 Q&A

(LG디스플레이 컨퍼런스콜 참고)

**Q1** **운영 효율화** **원가 혁신 등 운영 효율화를 지속 강조하고 있는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동사의 우선 추진 과제는?**

A1 동사는 구조조정, 운영 효율화 등 기존 약속 드린 바를 100% 만족할 수는 없으나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 아울러, 지난 몇년간의 과제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에서 새로운 과제로서 계속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

**"동사의 중장기적 과제는 지속적인 외형 성장과 매분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전 사업부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업부에서의 수익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경쟁력 회복이 필수. 다만, 과거에는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이었다면 앞으로는 경쟁력 회복을 위한 체질 개선이라는 점이 큰 차이점. 제품 포트폴리오, 운영 구조 효율화 등 목표를 달성한다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다시 한번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Q2** **모바일 패널** **25년 스마트폰 패널 출하량과 올해 목표치 공유 부탁. 고객사의 출시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은?**

A2 1H25 패널 출하량은 유의미한 수준의 상승을 기록, 2H25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연간 7,000만대 중반 목표치에 도달

통상적으로 4분기 패널 출하가 집중되나, 25년 3분기 물량이 크게 증가. 향후 상하반기 물량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며, 보유 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사의 니즈 맞춰 나갈 계획

**Q3** **원가 압박**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으로 타 부품의 가격 인하 압박이 예상되는데, 동사의 시각과 대응책은?**

A3 메모리 가격 상승은 1) 최종 IT 수요 감소, 2) 타 부품 비용 상승에 따른 디스플레이 판가 인하 압박으로 연결될 수 있음. 반도체 부품 상승과 대외활동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나, 동사는 LCD/OLED 투트랙 전략을 도모. LCD의 경우 하이엔드 중심의 수익성 운영. OLED는 탠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확대 추진. 현시점,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은 제한적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책 준비할 예정

**Q4** **8.6G 투자** **경쟁사 8.6G 적극 투자 중인데, 향후 전략은?**

A4 IT 세트 제품의 OLED 전환을 주시하고 있으나, 8.6세대 투자를 결정할 수요 가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시장 상황 지켜보며 투자 의사결정 내릴 예정. 현재 태블릿 OLED는 6세대 탠덤 기반으로 대응 중이며, 모니터 OLED는 8세대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대응 중. 노트북은 OLED 전환 속도를 모니터링 중. 기존 보유 생산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 이어갈 것

**Q5** **대형 OLED** **대형사업 수익성 전망과 중장기 전략 및 비용 압박 대응책은?**

A5 25년 전방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었으나, 목표로한 600만대 중반의 출하량을 달성하며 8% 성장 성공. 26년에도 매크로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 또한 제한적이겠으나, 하이엔드 OLED 전략 고객 니즈에 맞춰 라인업 강화 등을 통해 패널 출하량 10% 성장을 목표 (700만대 초반)

OLED 모니터는 게이밍 중심의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어, 최적화된 생산 및 운영을 통한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고객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생산/공급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